예산군·계룡건설산업, 안전 무시한 '배짱공사' 도넘어

예산 삽교 성리천 정비사업, 안전시설 전무

예산군 삽교읍 성리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계룡건설(계룡건설산업)이 안전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계룡건설산업은 이 하천 정비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우기대비 부실시공 등으로 시공능력을 의심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면서 이처럼 안전을 무시한 시공으로 불량건설사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까 우려된다.

CTN취재진은 실제로 계룡건설산업이 시공하고 있는 성리천 정비사업장을 방문, 수백미터에 이르는 공사 구간에 안전표지판은 물론 안전을 위한 시설은 전무한데도 발주처인 예산군과 책임건설사업관리단인 서영엔지니어링의 미온적인 관리 감독 마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특히 농번기를 맞아 인근 마을 농민들이 농기계 운행 등이 빈번하게 이뤄져 안전시설이 중요한데도 계룡건설은 이를 무시한 채 이뤄지고 있다.

이에 주민 A는 "농민들이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꼬집고 "공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안전시설물은 보지 못했다"면서 "세륜기 시설을 저렇게 전시해놓는 것만 봐도 이 건설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지 않겠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토목전문가 B는 "정도를 걷는 건설사라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현장에 대한 안전시설은 갖추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계룡건설 정도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 지적당하지 않도록 알아서 하는데 현장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계룡건설산업은 안전시설뿐 아니라 부실시공으로 인한 벽면 토사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염원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오탁방지막도 설치하지 않아 문제점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발주처와 책임건설사업관리단의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현장을 동행한 토목전문가 B는 "이곳 성리천 정비사업은 문제점이 하나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충청권을 대표하는 건설사인 계룡건설이 시공하고 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에 대해 예산군은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으로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현장 조치 현황을 알리겠다고 했다.

/기동취재팀

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본격화

'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사업설명회' 갖고 추진방향 공유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강소형 스마트시티 공모'에 선정된 태안군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했다.

군은 지난 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 등 군 관계자와 용역사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군민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가세로 군수의 인사에 이어 용역사 관계자의 사업 설명과 참석자들 간 토의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 케어 및 관광 스마트 솔루션 적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소개돼 관심을 끌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태안군은 지난해 5월 전국 군(郡)부에서 유일하게 공모에 선정돼 국비 120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후 민간사업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진행 후 올해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상세설계 발주에 나선 상태다. 사업은 내달 착수되며 2025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국비 포함 총 2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사업 대상지는 태안읍 기존 도심인 동문리 및 남문리와 태안기업도시 일원이다. 군은 기존 도심과 기업도시를 모빌리티 자원으로 연결해 모빌리티와 함께 기존 도심과 기업도시가 동반 성장하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로봇카트와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건강·심리상담도 진행되는 '거점 정류장' 조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상황을 사전 예측·경고해주는 '어르신 안전 사거리' 조성 △정해진 노선 없이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무선인터넷과 공기청정기 등이 갖춰진 쉼터 조성 △배송과 순찰, 야간 공연이 가능한 드론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가세로 군수는 "고령인구 이동성 개선과 의료 접근성 향상 등 스마트한 지역활력을 이뤄내는 동시에 지자체·기업 상생발전 모델을 만드는 등 강소형 스마트시티 태안 조성의 결실을 이뤄낼 것"이라며,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업 추진을 통해 태안군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필 기자

충청북도, 국내 최고 '천연물 클러스터 조성' 한다

천연물 소재 표준화 원스톱 시스템 구현 등 국가산업 선도 초석 마련

충북도는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 사업비 350억원 중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을 공모하였으며, 전국 5개 지자체가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1차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충북 제천, 전남 장흥, 경남 진주 3개소가 선정되었고, 2차 입지여건, 인프라, 부지현황 등 현장평가 결과 충북 제천이 최종 선정되었다.

충북에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천연물 관련 기업 500여 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제천을 중심으로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완제품 생산시설 등 사업화 후속지원 인프라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사업지 인근에 4,688천㎡ 규모의 바이오밸리가 조성되어 있어 입지여건이 우수하다.

그동안 충북도와 제천시는 지난 2010년도 전국 최초로 천연물산업 육성을 시작했고, 정부 천연물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2013년부터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및 완제품 시생산시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2020년도에는 전국 최초 천연물 관련 조례를 제정,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추진하는 등 천연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공모를 통해 2028년까지 건축비와 장비구축비 등 350억원을 투자해 제천시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에 부지 7,260㎡, 건축면적 6,270㎡규모로 제조공정 표준화시설, 분석·검증시설, 세척·건조·보관시설로 구성되는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센터를 구축할 예정으로 충북도가 천연물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충북도는 세계적 천연물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해 농가생산 확대, 신소재 확보, 글로벌 신제품 개발이라는 3대 목표와 4대 추진전략, 14개 실행과제를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제천 천연물 산업 육성에 지난 10여년간 1,171억원을 투자하는 등 많은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와 기업의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표준화시스템 등을 보완해 전국 최고의 천연물 클러스터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고, 제천을 거점으로 북부권 바이오산업을 발전시켜 도내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농식품부 현장평가시 제천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 덕분에 충북 제천이 선정되었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며 제천시민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천연물 허브의 구축은 제천시가 그동안 노력해 온 천연물 재배에서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농업과 산업을 아우르며 천연물 전주기 산업화를 완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천연물 산업의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부족한 모듈을 채워 넣음으로써 제천을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천연물 산업 중심지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철우 기자

천안시,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 최종 선정

2029년까지 국비 등 430억 원 투입 생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천안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00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맺고 활력 넘치는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300억 원, 시비 130억 원 등 총 430억 원 투입한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계획 검토, 보완 절차를 거쳐 내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농촌협약 공모 준비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농촌협약위원회·행정협의회·생활권추진위원회·중간지원조직과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농촌협약에 선정됨에 따라, 농촌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수 기자

서산시, 국제 크루즈 유치 총력

한국 테마 관광 박람회 참여…항만 인프라 소개

충남 서산시는 지난 3·4일, 부산광역시 '아난티 앳 부산 코브'에서 열리는 '2024 한국 테마관광 박람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며 해외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관광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크루즈, 럭셔리, 스포츠 등 3개 테마 트래블 마트가 동시에 통합 개최됐으며, 해외 구매자 70여 명, 국내 100여 개 기관과 업체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크루즈 테마에 참여해 Carnival, MSC, Holland, Viking 크루즈 등 구매자를 대상으로 국제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세미나를 통해 서산 대산항이 갖춘 인프라와 관광지를 소개했으며, 비즈니스 상담에서 9개 크루즈 선사·여행사를 대상으로 서산해미읍성, 간월암, 한우목장 등 관광자원을 소개했다.

시는 이번 박람회가 해외 크루즈 선사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었던 기회로서 향후 크루즈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앞으로도 서산시가 국제 크루즈 기항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사와의 활발한 소통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충청권 최초로 출항한 국제 크루즈선이 성공적으로 운행을 마치며, 어느 때보다 서산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국제크루즈 유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성진 기자